

LOCAL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영암, 숙련노동자·정주인구 모두 잡는다

담양, 안전한 농산물 공급
463종 농약 성분 정밀 검사

담양군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른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정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총 463종의 농약 성분을 극미량까지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024년 2430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해 담양군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검사는 담양군 농업인 대상 무료로 진행되며, 검사 희망자는 수확 2주 전 농산물 시료(1kg 이상)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제공된다.

정철원 군수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통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wnnews@

무안, 수산자원 조성 박차
영산강에 뱀장어 종자 방류

무안군은 최근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영산강 수역에 우랑 뱀장어 종자 6000마리를 방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방류된 뱀장어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매입해 무안군에 지원한 종자다.

군은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해 뱀장어, 메기, 동남참게, 쏘가리, 동자게, 자라 등 다양한 어종을 영산강 수역에 추가 방류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류가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외국인 이주노동자 확보
‘우수인재’ 비자 전환 활용...지역경제·인구 활력

영암군이 숙련노동자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2가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과 지난해 정식

사업을 시행했던 군은 올해도 외국 우수인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생활인구도 늘리는 차원에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영암군은 공고물 내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비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돼 한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군은 이주노동자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비자를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주어인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해 주는 정책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통상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전 단계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혜택을 공유하는 동시에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2025~2026년 영암군에서 이 비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인원은 120명이다.

올해부터 비자 전환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강화돼 한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외국인에게 유리하다.

나이가 취업 가능 업종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행행위나 풍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 역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비자 전환제도로 이주노동자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영암군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비자 전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사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이주민지원팀(061-470-2560)에서 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 위촉장 전달 영광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장세일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관련 주요 입법 동향과 정책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제공=영광군

완도, 763ha 양식 어장 정화 사업 추진

5억원 투입...장자리 등 5개 어촌계 대상

완도군은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763ha 규모의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식 어장 정화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양식 활동으로 인한 해양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5억원을 투입해 완도를 장자리 등 5개 어촌계 양식 어장 763ha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매년 어촌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어촌계 면허 유효기간, 양식 어장의 오

염 심화 정도, 어장 제재치 여부 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주변 어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군에서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30억원을 투입, 26개 어촌계 2767ha의 양식 어장을 대상으로 정화 사업을 추진해 총 868t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바다의 자정 능력 회복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물 품질이 향상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어장 정화선 이용 찾아가는 해양 쓰레기 수거, 바다 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해양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해양 생태계 회복과 수산 증강을 위해 총 23억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을 위한 바다숲 조성, 해상 서식 기반 조성 및 씨 뿌림, 건강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청정한 바다 보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함평, 나비대축제 입장권 50% 할인

안양시·남해군 등 7개 자매결연도시 대상

함평군이 오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자매결연도시 주민에게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축제 참여 기회를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축제장 매표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 해당 지자체 주민임을 확인해야 한다.

할인 대상 도시는 함평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협약을 체결했거나 예정 중인 경기 안양시, 경남 남

해군, 충북 제천시, 서울 강북구, 경기 용인시, 경남 함안군, 부산 사하구 등 총 7곳이다.

이상의 군수는 “이번 할인 혜택은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간 유대감과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분이 나비대축제장을 방문해서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황금박쥐 캐릭터 ‘황박이’와 함께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봄날의 생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

목포,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도착 예정시간 정확도 향상 등

목포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능개선 사업을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 통해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버스 도착예정시간 정확도 향상, 목포시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개선, 버스정보안내기 기능 확장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목포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은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화됐다. 시민들은 차고지·회차지 버스 출발 정보, 운수업체 정보 등을 직관적인 화면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는 행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날씨 정보도 개선했다.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실효성도 한층 높아졌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